

“구름 끼었다고 태양 사라지나”

능가경 ①

선(禪)은 범어 디야나(dhyāna)의 음역인 선나(禪那)의 줄인 말로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선은 본래 인도의 전통적 수행법인 요가의 불교적인 변용이며, 선정(禪定)·정(定)·정려(精進) 등으로도 번역된다. 선은 근본불교와 부파불교에서도 중시되었고, 특히 대승에서는 6바라밀이나 10바라밀에 포함되어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 닦는 수행법으로서 중시되었다.

선은 중국 불교에서도 수행의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선종(禪宗)의 초조인 보리달마(菩提達磨)는 대승 벽관(壁觀)을 전하여 선종이라는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선종에서 말하는 선의 궁극적 목적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그러면 견성이란 무엇일까? 보리달마는 <입사행론(理入四行論)>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견성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은 둘이 된다. 첫째는 이입(理入)이고, 둘째는 행입(行入)이다. 이입이란 경전을 통하여 도(道)의 큰 줄기를 알고, 사람은 모두 범인(凡人)도 성인(聖人)도 평등하게 진실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만 외적인 망상에 의해 덮혀지고 숨겨져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망상을 버리고 진실로 들

글쓴이



남수영 (동국대 강사)

아가 의연히 벽관(壁觀)에 머물면 자타(自他)도 범성(凡聖)도 하나이다.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문자(文字)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심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作爲)가 없는 것을 이입(理

경전 속의 禪 사상

22

달마대사 혜가에게 “이經따라 행하라” 번뇌 사라지면 보배로운 본성 드러나

入)이라고 한다.”

여기서 달마가 말하는 이입이란 곧 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달마는 그것을 ‘범인도 성인도 모두 평등하게 진실의 본성, 즉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벽관에 머물러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심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선종의 5조(祖) 홍인(弘忍, 602~675)이 지은 <수심요론(修心要論)>에서도 견성의 의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구가 발견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다시 태양에 비교한다면 구름이 팔방에

서 뭉개뭉개 일어나서 천지가 캄캄해질 때와 같다. 태양이 어찌 사라져 버릴 것인가? 어찌 빛이 없어질 것인가? 빛은 원래 소멸하는 일이 없다. 다만 구름에 가려졌을 뿐이다. 사람의 청정심(淸淨心)도 이와 같다. 방연하는 망념(妄念)이나 번뇌의 여러 견해라는 검은 구름에 덮혔을 뿐이다. 의연히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망념은 일어나지 않고 열반이라는 ‘법의 태양(法日)’은 자연히 일어난다.”

홍인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있는 청정심이 번뇌의 구름에 가려 있지만,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 곧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견성이란 번뇌에 덮혀 있으면서도 그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본성, 즉 불성을 깨닫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종의 ‘견성성불론’은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여래장이란 불성의 다른 말로서,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혀 있으면서도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부터 청정하여 변함없는 깨달음의 본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래장 사상을 따르면 이 여래장은 번뇌에 덮혀 있어서 그 본성이 감추어져 있지만, 번뇌가 제거되면 곧바로 그 보배로운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한다. <능가경>은 바로 이와 같은 여래장 사상을 설하는 경전인데, <능가경>은 제3 ‘집일체불법품(集一切佛法品)’에서 여래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래장은 자성(自性)이 청정(淸淨)하여 32상(相)을 갖추고서 일체 중생의 몸 속에 있건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진실치 못한 번뇌의 때로 더럽혀졌으며, 5음(陰)과 18계(界)와 6입(入)의 옷에 얽히고 쌓인 것이 되었기에 값진 보배가 때묻은 옷 속에 묻힌 것과 같다고 하시었습니디.”

<능가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보리달마와 홍인의 언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리달마가 <능가경>을 중시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도선(道宣)의 <속고승전>에 실려 있는 선종의 2조 혜가(慧可, 487~593)의 전기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능가경>을 혜가에게 전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보전해 다만 이 경이 있을 뿐, 너는 따라 행해서 스스로 제도함을 얻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과 <능가경>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초기의 선종은 능가종(楞伽宗)이라고까지 불리워 졌다고 한다.

태국 내나삼핀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③

무지에서 공까지 ⑧

‘돌

아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더 이상 사람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완전히 깨달아 일을 다 마쳤다는 말이다. 감각적 욕망과 마음은 ‘돌아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완전히 사라지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과 성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미혹’에 빠져있는 것이며,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라는 예의 그 보석을 지키고자 이다지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욕심과 성냄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그러나 명상을 계속해서 실천하면 마음은 점점 맑아지게 된다. 마침내는 깨달게 된다. 깨달을 때 마음은 초월적 진실을 보게된다. 단 한 찰나 동안 불 뿐이라도 그 경험은 실로 커다란 영향을 가져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

누구든 목재나 벽돌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은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다. 명목상의 집일 뿐이다. 진정한 보금자리는 우리 내면의 평화이다. 외면의 물질적인 집은 보기에는 그럴 듯할 지 모르나 생각만큼 평화롭지 않다.

그곳에는 이런 걱정 지런 근심이 끊임 사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상적 일에 말려들지 않고

마음 평온하면 空心 알게 돼

우리에게 그것은 눈앞의 한 사물에 불과하며, 따라서 서둘러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진정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그것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역시 세상에 속하는 또 하나의 다른 집일 뿐이다.

전 우주가 온통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우주에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란 요소와 몸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 믿건 안 믿건 이 이합집산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다. 체할해 보면 극명해진다. 망고의 맛을 아는 데는 망고를 직접 깨물어보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체할해 보기 위해서 명상수행이 필요하다. 평범한 마음으로 평범한 관념과 개념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망고의 맛, 즉 비범한 마음은 선정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비범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일상적인 일들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선정을 이룰 수 있게되면 마음은 이전에는 전연 몰랐던 경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윽고 마음이 중요함이 없이 고요해지고 평온함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심(空心)의 개념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며, 마음 그 자체가 전적으로 무상(無常)한 것이 줄 알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 비었다는 말인가? 이 비었다는 말은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오해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실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다.

어떤 것도 특별한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한낱 ‘흐름’일 뿐이다. 아무런 실상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다. 비어 있음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과학산책

식물의 의식②

식물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우리 불교에서는 식물에게도 당연히 불성이 있다고 답한다. 그런데 서양 과학에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물론 서양 과학에서는 불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도 우리와 같이 바깥 세계를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며 일종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서양 과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과는 같지 않지만 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초 라울 프랑세(Raoul France)는 인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식물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식물에게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놀라운 점들이 있다. 땅이 건조해지면, 식물의 뿌리는 수맥을 찾아 방향을 바꾼

다. 어떤 식물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땅까지도 뚫는다. 일단 비옥한 땅에 도착하면 뿌리는 성적이 달라져 땅을 파기에 적당하던 세포는 사라지고 토양 속의 무기염을 분해해서 그 원소들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마치 외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물에게도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신진대사가 있다. 하루에 해바라기 한 그루가 잎사귀들을 통해 증발시키는 수분의 양은 사람 한 명이 흘리는 하루의 땀의 양과 맞먹는다. 한 그루의 자작나무가 무더운 날에 잎사귀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빨아들이는 물의 양은 약 380리터나 된다.

또한 식물들은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다. 식물들은 자신의 풀을 훔치려 오는 개미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만큼 풀기에 이슬이 충분이 맺혔을 때야야 꽃잎을 벌린다.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

수맥찾아 뿌리 방향 바꾸듯 환경에 적응하며 신진대사

아카시아의 경우, 어떤 종류의 개미와 공생관계를 맺어 다른 벌레나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해주는 대가로 꿀을 제공해 준다. 난초과의 한 식물은 특정 종류의 수파리를 피기 위해 그 종류의 알파리 모습과 꼭 닮은 모양의 꽃잎을 피운다. 달맞이꽃은 밤나방과 밤나비들을 보다 잘 피기 위해 하얗게 피어나 황혼



무렵에 더욱 강렬한 향기를 풍긴다. 파리들만 우글거리는 곳에서 자라는 캐리은 백합은 고기 썩는 냄새를 피워 수분받기를 한다. 이와 반대로 벌레들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없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 받이를 하는 꽃들은 아름다움이 나 향기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저 수수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

눈치대에 사는 어떤 식물들은 질소 성분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살아 있는 벌레를 잡아먹음으로써 이를 보충한다. 이런 육식성 식물들은 5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곤충을 잡아먹는 끈끈이주걱은 잎사귀에 돌이나 금속조각

을 올려놓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다윈에 의하면 이 끈끈이주걱이 자신의 먹이에 대해서는 0.00000083그램의 무게까지도 감지해 낸다.

고산 지대의 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화는 계절을 정확하게 알아내어 아직 남아 있는 눈더미를 스스로 열을 내어 녹이면서 봄을 맞아 땅에서 뚫고 나와 싹을 틔운다. 피터 톨킨스와 크리스토퍼 버드는 <식물의 정신세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식물에 의식이 있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소리없이 팔리는 책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

주머니 속 대장경

3X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풀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조선 시대 선사 4인의 선사 모음집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령

한글 새해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101 - 교리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502 - 문화·학술편

102 - 교리·입문편

501 - 문화·학술편

401 - 문학편

301 - 선(禪)

303 - 선(禪)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법수로 배우는 불교

불성이란 무엇인가

허공의 딸꼭질

참선요지 (參禪要旨)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아사 후리도 공저, 김종근 편역 36 변형 242쪽 / 값 5500원

조셉 스탈 편역 86 변형 178쪽 / 값 4000원

김종서 지음 86 변형 182쪽 / 값 4500원

이재열 지음 86 변형 196쪽 / 값 4500원

전치수 지음 86 변형 282쪽 / 값 4500원

이종찬 지음 86 변형 282쪽 / 값 50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興)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김형조 지음 86 변형 336쪽 / 값 6000원